지각자의 내향성-외향성이 의복색 평가에 미치는 영향

이 명 희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Ⅰ. 서론

지각대상자를 평가하는 지각자의 특성에 따라 의복의 시각적 평가가 달라지게 되는데 지금까지 지각자 변인은 성별이 주로 많이 연구되었으며, 지각자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다. 특히 지각자의 심리적 특성 중에서 내향성-외향성을 다룬 내용은 거의 없는데 내향성-외향성은 일찍이 의복과 관련이 있는 성격 특질로 간주되어 왔다. 내향성-외향성은 한 사람의 근본적인 사고 및 행동의 방향이 자신의 내부로 향하였는가 또는 외부로 향하였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내향성-외향성의 성격특성은 의복의 시각적 평가와 관련지어 연구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사람들은 의복디자인 요소 중에서 색에 대해 가장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오늘날에는 과거보다 색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내향성-외향성에 따른 의복색 평가의 차이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각자의 내향성, 외향성 성격특성에 따른 의복색 평가의 차이를 조사하고, 내향성-외향성 성격특성과 의복색에 따른 이미지 평가의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며, 내향성, 외향성 집단의 의복색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이미지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다.

Ⅱ.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질문지를 사용한 준실험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피험자간 (between-subject) 설계가 실시되었다. 실험설계는 7×2 (의복 색 × 지각자의 내향성-외향성)의 요인설계를 사용하였다.

자극물은 7종류의 여성 사진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칼라 출력물이었으며, 그림의 크기는 10×18㎝였다. 의복은 짧은 소매의 라운드 네크라인의 티셔츠와 베이지 색의 긴 면바지 차림이었다. 티셔츠는 비교적 다양한 색의 옷차림으로 착용되므로 자극물의 의복유형으로 선택되었다. 자극

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표준체형의 20대 여성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여성 모델이 실험의복을 착용한 사진을 찍은 후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의복 색을 바꾸었다. 티셔츠의 의복 색은 빨강, 노랑, 파랑, 남색, 흰색, 회색, 검정의 7가지 색이었다.

이미지 평가에 사용된 의미미분척도는 선행연구(이명희, 2002; 한정숙, 유숙희, 1997; Darmhost. 1990)를 참고로 하여 9개의 형용사 쌍을 선정하였으며, 1개의 선호도 항목을 포함하여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내향성-외향성 성격특성은 선행연구(이현수, 1983)에서 10 문항을 택하였으며, 5단계 Likert 척도법을 사용하였다. 내향성-외향성 문항의 Cronbach's α 신뢰도는 .85였다. 본 연구에서는 10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중앙치 3.40 이상은 외향성 집단, 3.40 미만은 내향성 집단으로 피험자를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내향성 집단은 44.3%, 외향성 집단은 55.7%였다.

피험자는 서울 및 서울근교의 여대생 174명이었으며, 한 개의 자극물에 24~25명의 피험자가 반응하였다. 자료분석은 이원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t-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지각자의 내향성, 외향성에 따른 의복색 평가의 차이를 t-검증으로 조사한 결과 지성, 활동성, 우아함, 부드러움은 모든 색의 평가에서 두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개성, 자신감, 세련성, 적극성, 성적매력성은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빨강은 자신감과 성적매력성 평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 내향성 집단이 외향성 집단보다 빨강색 셔츠 착용자를 더 자신감이 높고 성적매력성도 높다고 평가하였다.노랑은 개성 평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외향성 집단이 내향성 집단보다 노랑색 셔츠를 더 개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파랑과 검정은 자신감 평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 내향성 집단이 외향성 집단보다 파랑을 더 자신감이 높게 평가하였다. 또 검정은 적극성 평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 내향성 집단이 외향성 집단보다 검정을 적극성이 높게 평가하였다. 회색은 세련성 평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외향성 집단이 내향성 집단보다 회색을 세련성이 낮게 평가하였다.

지각자의 내향성-외향성과 의복색에 따른 이미지 평가의 상호작용을 이원변량분석으로 조사한 결과 자신감, 세련성, 적극성, 성적매력성의 평가는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내향성 집단은 빨강과 파랑색 셔츠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높다고 평가하였으나 남색과 회색은 자신감이 낮게 평가하였다. 외향성 집단은 노랑을 자신감이 높게, 검정을 자신감이 낮게 평가하였다. 세

련성에 대해서는 내향성 집단은 외향성 집단보다 검정색과 회색을 세련성이 높게 평가하였다. 적극성 평가에서는 내향성 집단은 빨강, 파랑, 검정을 적극성이 높게 평가하였고 남색은 적극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외향성 집단은 노랑을 적극성이 높게 평가하였다. 또 외향성 집단은 색에 따라 세련성 평가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내향성 집단은 특히 다른 색보다 검정을 세련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주효과를 보면 지각자의 성격특성은 개성, 활동성, 세련성 평가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여 내향성 집단은 외향성 집단에 비하여 티셔츠 착용자의 개성을 낮게 지각하였으나, 활동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외향성 집단은 내향성 집단보다 티셔츠 착용자의 세련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의복색은 활동성과 우아함을 제외한 7개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노랑은 개성과 자신감이 높았으나 지성이 낮았고, 파랑도 자신감이 높게 평가되었다. 회색은 개성, 자신감, 적극성, 성적매력성이 모두 낮았다. 검정은 지성과 세련성이 높았고, 흰색은 부드러운 이미지가 높았다. 빨강은 적극성과 성적매력성이 높았으며, 남색은 성적매력성이 낮았다.

내향성, 외향성 집단별로 의복색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이미지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내가 좋아하는' 항목을 종속변인으로, 다른 이미지 평가 항목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내향성 집단의 의복색 선호도에는 세련성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이미지가 영향을 주었으며, 2개 변인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45.2%였다. 즉 내향성 집단은 세련되며, 부드러운 이미지가 높을수록 선호도가 높아졌다.

외향성 집단의 의복색 선호도에는 세련성, 성적매력성, 부드러움, 활동성, 자신감(-)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5개 변인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48.9%였다. 즉 외향성 집단은 세련되고 성적매력성이 있고, 부드러움과 활동성이 높고, 자신감 있는 이미지가 낮을수록 선호도가 높아졌다. 따라서 내향성 집단과 외향성 집단 모두 세련된 이미지가 선호도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으며, 외향성 집단은 선호도에 미치는 이미지가 내향성 집단에 비해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외향적인 사람들이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적극적인 생활태도를 지니므로 다양한 이미지를 수용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볼 때 내향성 집단은 외향성 집단에 비해 빨강색 의복 착용자를 자신감 및 성적매력성이 높게 평가함으로써 눈에 띄는 의복색을 더욱 강한 이미지로 지각하며, 외향성 집단은 내향성 집단보다 다양한 이미지를 폭 넓게 수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내향성-외향성 성격특성은 의복색의 평가에 영향을 주는 의미있는 지각자의 특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이명희. (2002). 상황, 의복 유형 및 배색이 여성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6(3/4), 503-514.

이현수 (1983). 성격특성의 요인구조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논문집, 27, 111-137.

한정숙, 유숙희 (1997). 테일러드 재킷 디자인 평가를 위한 의미미분척도 개발. 복식문화연구, 5(4), 159-165.

Damhorst, M. L. (1990). In search of a common thread: Classification of information communicated through dres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8(2), 1-12.